반월·시화산단 604억 투입… 스마트공장 모델 만든다

산업단지公, 민간투자 업무협약

산업단지 차원 민간자생적 첫 모델
생산·경영관리 솔루션 요금할인 등
분야별 파격적인 서비스 조건 제공

반월산업단지 전경. /한국산업단지공단

반월·시화산업단지가 대규모 스마트공장 모델로 거듭난다.

특히 정부 주도의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한계성을 벗어나기 위해 총 604억원 규모의 민간 선투자를 통해 반월·시화산단 입주기업의 스마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12일 산단공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스마트산업단지 민간투자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을 포스코ICT 컨소시엄 및 스마트허브 경영자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함께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국내 최대의 중소기업 집적지인 반월 및 시화, 시화MTV의 3대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민간 대기업들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다양한 생산효율화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으로 보급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단지 차원에서 민간자생적인 스마트공장 확산 모델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다.

산단공은 지난 6월 스마트산업단지 민간투자 시범사업을 공모하여 반월·시화·MTV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스마트 생산·경영·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는 사업자로서 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기업인 포스코ICT, KT, 한국전력, 장우기계 등으로 구성된 포스코ICT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포스코ICT컨소시엄은 그동안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펼치던 서비스와는 달리 산업단지 차원에서 추진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최우수 기술제품, 성능 보증 및 최고의 사후관리, 최적의 금융조건으로 구성해 분야별로 파격적인 서비스 조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생산 및 경영관리 솔루션 분야는 서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분야는 컨소시엄에서 고효율 에너지절약 설비를 선투자 후 에너지 절감액으로 분할상환(민간ESCO 방식)한다.

또 ICT 융합기술을 접목한 산업단지 전용통신망 분야는 서비스 요금을 대폭 할인하고 전용 데이터를 정액 제공하며, 폐수처리 고효율 슬러지 건조기는 차별화된 가격정책을 제공하게 된다.

산단공은 이번 첫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만남의 장인 '스마트허브 스마트공장 상생협력의 판'을 T/F로 운영하고, 시범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가교 역할에 집중할 예정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최대 집적지인 반월·시화단지야말로 민간 대기업의 혁신기술과 자금력, 정부의 지원, 산단공의 플랫폼이 결합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에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현재 침체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역량 제고와 스마트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과 기존 대기업이 상호 협력하는 동반성장과 상생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신재생에너지 中企, 필리핀 진출 지원

한수원-산타페시, 수상태양광 MOU
시설운영 경험 전수… 부품 무상제공

충주댐(청풍호)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의 필리핀 진출 지원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필리핀 세부주 산타페(Santa Fe)시와 물·에너지 분야 협력과 수상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타페시는 필리핀 세부주 북쪽에 위치한 시로, 인구는 약 4만명에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관광 섬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새로운 관광지로 개발돼 물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산타페시에 공사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과 경험을 전수하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공사와 스코트라, 대원강업, 일렉워크 등 3개 중소기업은 필리핀 산타페시에 50kW급 수상태양광 실증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사업을 이달 19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공사는 시범사업 총괄을 맡아 사업성 평가와 시설 운영 관리경험을 전수하며, 참여기업은 수상태양광시설의 설치와 성능검증, 현지인력 교육,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태양광 설비를 제조하는 대기업 한화큐셀(주)이 실증시설의 핵심부품인 태양광모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사는 10월 중 수상태양광 실증시설을 준공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연말에 산타페시에 시설을 인계할 예정이다.

이학수 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물관리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분야까지 중소기업과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내 물산업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해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웅 기자

지난 14일시흥시청에서 개최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식 행사에 참여한 (왼쪽 네번째 부터)조정식 국회의원, 임병택 시흥시장,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H

LH-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흥시는 지난 14일 시흥시청에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화국가산업단지는 조성 후 30년이 지나 기반시설 노후화, 주거·문화·근로자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기반시설 개선과 근로자 지원시설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3월 재생사업 대상단지로 지정, 재생사업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H와 시흥시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체계적 계획수립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호협력하게 된다.

LH는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생사업계획 자문, 국·도비 확보 협력, 스마트산단 모델마련 등을 담당한다. 시흥시는 시화국가산단 재생사업 내 활성화구역 개발방안을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한다.

LH는 시흥시와의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과 산업구조 변화에 적합한 노후산단 재생사업 모델을 정립하고, 시화국가산단 활성화구역에 대한 사업참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LH는 전국 노후산단 재생사업에 참여해 기존 노후된 산업공간을 창업·혁신공간과 문화·복지공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혁신성장거점으로 재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대구산단 활성화구역을 시작으로 성남일반산단, 대전1·2산단 내 행복주택건립, 공공형 지식산업센터건립 등 다양한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LH가 보유화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과 재생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계획·기술자문, 스마트 노후산단 모델마련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묵직한 '사과' 맑고 투명한 '배' 고르세요"

농진청, 품질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

농촌진흥청이 추석을 앞두고 과일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을 위해 품질 좋은 과일 고르는 방법을 제공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농진청에 따르면 올해는 추석은 9월 24일로 평년(9월 22일)과 비슷해 추석 과일의 출하와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과를 고를 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것이 좋다. 과일 전체에 색이 고르게 들고 꼭지 부분까지도 색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것을 고른다.

과일 꼭지도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며 꼭지가 시들고 잘 부서지는 것은 수확한지 오래된 과일로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싱싱하다.

올 추석에 구입 가능한 국산 사과로는 '홍로'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9월 상순과 중순에 익는 품종으로 과실 크기는 300g 내외다.

배는 껍질 색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의 반대편 부위에 미세하고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런 경우 껍질이 얼룩덜룩할 수 있으나 맛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세종=최신웅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세계최고' 8년 연속 공항면세점상 수상

인천공항 면세점이 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에 등극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3일 홍콩 아일랜드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트래블러 아시아-태평양판 어워드' 시상식에서 인천공항 면세점이 8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면세점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임남수 공사 여객서비스본부장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상품과 차별화된 면세 쇼핑 서비스를 통해 면세산업을 선도하는 세계 최고 공항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사회적기업진흥원 전국 11개 역사서 '추석 판매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함께 이달 26일까지 전국 11개소 역사에서 권역별 사회적경제기업 추석판매전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전국의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국민들이 보다 가깝고 편하게 만나보는 기회를 열기 위해 진행된다.

추석판매전은 용산역, 영등포역, 부산역, 울산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강릉역, 김천구미역, 목포역, 동대구역, 익산역에서 추석 전 1주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확대하고,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일상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만나볼 수 있도록 백화점 추석판매전 입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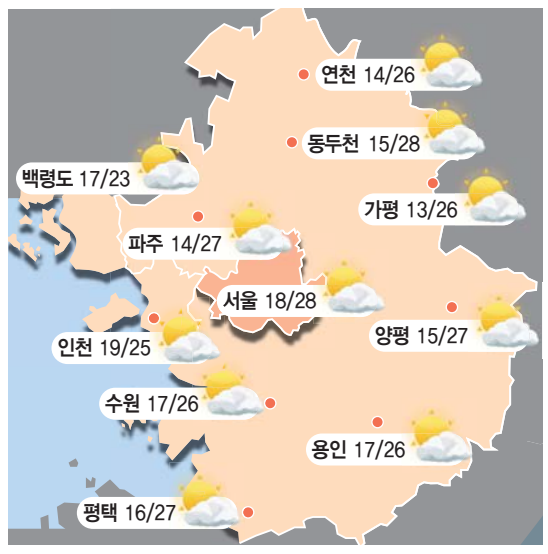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 06:16 | 해짐 / 18:36

9월 18일 (火)
음력 : 8월 9일

수도권 날씨
28~18℃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